



#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201803964 황수민  
미네르바 글쓰기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근래에 들어, 한 개인은 더 많은 사람과 소통을 하고 사생활을 나눌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지만, 이에 역설적으로 의사소통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과거보다 ‘말’과 ‘글’이 더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대화가 줄어들고 있는 현시대를 가리키며 우리는 과연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의문을 던지는 동시에, 지금의 의사소통이 과연 ‘좋은’ 의사소통인가에 대해 되돌아보고 있다. 왜 우리는 의사소통, 그것도 좋은 의사소통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가장 단순한 대답을 하자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다. 최초의 인간이 지상에 탄생한 시점부터 무리를 지어 사회활동으로 생존한 인간은 지난 5000만년의 세월 동안 이를 본능으로 내재시켰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사회’라는 정교한 시스템에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생존할 수 없기에,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도 의사소통을 통해 거대한 사회 구조에 통합될 필요성이 있다. 통신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확실히 소통의 범위는 거대한 지구를 하나의 지구촌이라 볼릴 수 있게 만들 정도로 넓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소통이 출현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왜 의사소통이 줄어들고 있다 주장할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의사소통이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가? 지금부터 건강한 사회를 위한 ‘좋은’ 의사소통이 무엇인지 따져보자.

소통에는 크게 말과 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그 범위가 더 크게 넓어져, 이미지와 소리 또한 소통의 범위에 집어넣어야 한다. 아직 문자가 발명되지 않은 시대에서 ‘말’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진 유일한 소통의 방법이었지만, ‘글’의 출현으로 인해 말은 문자의 형태로 영구히 보존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 확실히 ‘말’이라는 것은 사람의 입 밖으로 내뱉어지는 순간 소멸하여 문자처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에디슨이 최초로 발명해낸 축음기의 등장 이후로, 우리는 ‘말’ 또한 문자와 유사하게 기록의 형태로 남길 수 있게 되어, 말이 가진 한계점을 극복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기술의 발전은 문자와 유사하게 말 또한 영구히 보존하게 만듦으로써, 전화, 동영상, 녹음 등의 방법으로 말 자체를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다양한 형태로 응용되어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상태이다. 물론 말보다는 글이 더 수정하기에 편리한 점이 있었기에 매체를 통한 소통에서 글이 말보다 더 많이 사용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튜브, TV 등에서 말이 글 못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말과 글을 읽는 사람이 존재하고, 실시간으로 댓글이나 통화로 소통이 가능하며, 실제로도 이러한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의사소통’이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본다면, 문제는 말과 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말과 글의 이용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 좋은 의사소통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일까? 과거와 비교해서 나타나는 큰 차이점은 ‘더 많은 사람과 소통이 가능해졌다.’라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점은 과연 ‘다수’와 ‘소통’을 하는 것 자체로도 의사소통이 성립하느냐이다. 의사소통의 사전적 정의는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함’이기에, 단순히 청자와 화자가 존재하고 말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조건만으로는 온전한 의사소통이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힘든 것이다. 서로의 뜻이 통하기 위해서는 평균 정도의 인간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하며, 신뢰를 얻기 위해 진정성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의사를 표현할 때 낯것 그대로를 드러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매체, 혹은 글로 작성된 형태의 소통은 언제나 수정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낯것이라 취급하기 힘든 점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수정 가능성이 없는 ‘말’ 그 자체를 타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번거롭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은 서로간의 신뢰를 구축하게 되며, 처음 목표로 하였던 온전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과정을 생각해본다면, 알고 지내는 사람

보다도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가상의 세계 속 존재와 소통을 더 많이 하는 현대의 사람들에게 의사소통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은 일리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의사소통’이란 무엇일까? 위의 이야기를 통해 설명한다면 인간관계가 성립되어있는 상태의 의사소통이라고 볼 수 있다. 단순히 말하고 듣는 것으로 성립하는 단순한 소통보다는,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온전히 이해하며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좋은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사소통은 빠르고 간편한 것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는 복잡한 절차이다. 트위터의 팔로잉을 누르거나, SNS에서 친구추천 목록 중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으로 간단히 지인들을 늘려갈 수 있는 시스템에 지나치게 익숙해져 있기에, 이러한 합리성과 편리성을 버리고 다시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은, 그것이 ‘좋다’라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음에도, 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이다. 가족 간에 이러한 의사소통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의사소통의 범주가 가족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혈연관계가 아닌 타인과의 좋은 의사소통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소셜네트워크로 연결되어있는 관계를 끊어낼 필요가 있다. 수십, 혹은 수백의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중 면식이 있고, 깊은 단계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추려낸다면, 그 수는 십 단위로 줄어들 것이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우리가 좋은 의사소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의 소통 시간을 빼앗으며, 그저 가상의 형태로만 남아 있는 애매한 관계로 남을 뿐이다.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러한 애매한 형태의 관계성에 환멸을 느끼고 잠시 사회를 떠나는 사람도 적지 않은 추세다. 그러므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서로의 뜻과 의견을 온전히 이해하는 ‘좋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좋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과거의 방식대로 현실 세계에서만 얼굴을 마주하고 말과 말로써 소통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좋은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화하는 상대방의 관계성이 얼마나 깊은가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문자나 통화로 소통하는 것도 좋은 대화가 될 수 있다. 다만, 앞서 말한 진정성 있는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하기에, 평균 정도로 현실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특히 대상과의 물리적 거리가 짧을수록 만남이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실하게 행동하는 것을 증명하여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의사소통을 가능케 할 수 있다.

건강한 의사소통은 타인과의 깊은 인간관계와, 그 관계성의 연속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지나치게 많은 것이 덜한 것보다 못하다는 것처럼, 소통을 맺는 사람도 항상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범위를 유지하며, 그들을 진정성 있게 대해야만 비로소 친구라고 부를 수 있다. 인맥이 곧 재력이라 불리는 현 상황에서 인맥을 최소한으로 줄이라는 것은 지금의 경쟁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으로 비추어질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과연 자신을 건강하게 하는지, 혹여 자신의 인간관계를 병들게 하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 의사소통을 하는 이유는 소통을 통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이지, 자신의 몸을 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다. 즉,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면, 그것은 의사소통의 본질을 해치는 것일 뿐이다. 모든 사람과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는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자신의 주변에 가까이 남아 있는 사람들을 먼저 챙기고 오랜 관계성을 지속한다면, 개인의 건강한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